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문 정¹⁾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Kim, Moonjeong¹⁾

1) Student on Doctor's Program & Instru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mmon, lived experiences of grandmothers who cared for their grandchildren as the primary caregiver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escribed by Colaizzi (1978). **Results:** Seven theme clusters 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grandmother caregivers accept the parenting role of the incessant responsibilities and the distrust of non-kin caregivers.”, “grandmother caregivers have a double maternal roles; an instrument-oriented maternal role to their own child and relationship-oriented maternal role to their grandchild.”, “grandmother caregivers are partially authorized to make decisions in the matters of their grandchild.”, “grandmother caregivers suffer a deterioration in their health by an acceleration of the aging process.”, “caregiving causes grandmother caregivers to feel a sense of social isolation, and pursue various coping strategies to control this feeling.”, “grandmother caregivers have a greater feeling of self-esteem, but they often conflict with their adult children if they don't feel appreciated

by them.”, “grandmother caregivers have limited social support and their health issues are often overlooked in the family contex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guide nurses and health 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grandmother caregivers and to implement individualized nursing interventions suited for them.

Key words : Grandmother, Caregiver, Experience, Phenomenology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정도에 이르렀지만 맞벌이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육아문제는 여성 경제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출산을 거부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즉 보육시간의 비현실성, 대상 아동의 연령제한, 질 높은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영아의 보육시설 수탁율은 전체

주요어 : 할머니, 돌봄제공자, 경험, 질적연구

투고일: 2007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1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oonjeong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ongsong-dong, Jongno-gu, Seoul 110-79, Korea

Tel: 82-2-740-846 Fax: 82-2-747-394 E-mail: mjj7955@hanmail.net

영아의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Baik & Kang, 1995). 따라서 사회보육시설의 공백을 엄마의 휴직이나 퇴직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인척의 대리 양육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 없는 맞벌이 부모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에 의한 개별적인 대리 양육을 선호한다. 즉 영아 때는 조부모를 포함한 친척, 이웃 등의 개인에게 맡기고 자녀가 집단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을 때 보육시설에 위탁한다(Kim, 1997). 맞벌이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대리 양육자는 아동의 할머니로 이는 할머니가 아동을 애정으로 돌보며, 신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노년기의 정서적·심리적인 소외감을 잊고, 자녀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Pinson-Millburn & Fabrian, 1996). 또한 손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지가 고양되며, 손자녀가 주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다(Burton, 1992; Jendrek, 1993).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의 악화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강문제는 피로이며 만성적인 건강문제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할머니 양육자의 만성적인 건강문제는 주로 노화 때문이지만 손자녀 양육의 부담이 이를 더욱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Haglund, 2000). 또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재정적인 자원의 부족은 자가 간호를 더욱 어렵게 하며(Minkler, Roe, & Price, 1992),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심리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Burton, 1992) 측면을 볼 때 손자녀 양육은 할머니 양육자의 건강에 위기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손자녀 양육의 부담이 할머니 양육자의 건강에 위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할머니 양육자의 건강을 사정할 때 손자녀 양육 부담을 위기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재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할머니 양육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전반적인 상황과, 이들이 인식하는 손자녀 양육의 부담, 그리고 참여자가 인식하는 양육의 부담이 참여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할머니 양육자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취업모의 관점에서 탁아의 한 형태로 다루거나, 양육의 결과로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조사하거나, 조부모 역할의 일부로 다루고 있어 할머니의 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양육의 부담감을 조사한 Kwon(2000)의 연구에 제한된 실정이다.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미미할 때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맥락을 상실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

황에서 그 경험을 조사하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이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Maxwell, 1996). 따라서 손자녀 양육의 부담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이 그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현상학적 연구가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심리적 경험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경험은 인식 하에 있으므로 지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확인(member check)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한 맥락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므로 연구자의 선입견을 여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를 참여자로 하여 손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맥락, 그들이 인식한 손자녀 양육의 부담, 인식된 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를 안내할 연구 질문은 “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맥락, 그들이 인식한 손자녀 양육의 부담, 인식된 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심층 서술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표본추출 방법은 연구현상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손자녀의 연령이 학령전기 이하이며, 자녀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양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할머니 또는 외할머니로 표본의 한계를 정하였다. 표본 선정에서 이러한 한계를 정한 이유는 손

자녀의 연령과 할머니 양육자가 손자녀에 대해 양육의 주된 또는 부분적인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손자녀 양육의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였다.

연구 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문제는 참여자와의 첫 접촉에서부터 면담을 끝낼 때까지 연구자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으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다.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10명에게 전화방문을 하면서 참여자와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전화방문에서 우선 연구자, 연구목적, 면담방법, 면담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녹음기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뒤,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동의하였고 2명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고 남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면담이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면담 장소와 시간을 연구 참여자가 정하도록 하였는데 8명의 참여자 모두 자신의 가정을 선택하였다. 면담을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질적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면담

중에 주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를 위해 “손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주십시오.” 같은 일반-여행식 질문(grand-tour question)으로 면담을 시작하였고 프롬프트(prompt)를 활용하여 면담을 자연스럽게 이어 나갔다. 즉 참여자가 표현한 핵심용어를 면담자가 질문의 형식으로 반복하는 면담 방식을 통해서 면담자의 개입을 막으면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cCracken(1990)이 제시한대로 일반-여행식 질문(grand-tour question)과 프롬프트(prompt)를 결합시키는 것만으로도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답변의 모든 내용을 표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담한 내용을 음성녹음 하였고, 녹음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 필사하였다(verbatim). 그리고 면담의 상황이나 가정의 분위기,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메

모에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참여자와의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 30분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하는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제 1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구두 혹은 문자로 된 내용을 듣거나 읽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얻으려고 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다.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참여자, 그리고 참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 강조되는 내용,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제 3단계에서는 추출된 문장과 구절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의 명확한 의미, 즉 맥락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진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말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제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모음 혹은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된 의미들을 묶어 주제로 조직하였고 주제들을 다시 묶어 주제 모음으로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 모음이 원자료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반문하였다.

제 5단계에서는 주제 모음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자료의 분석 결과를 철저하게 서술하여 통합하였다.

제 6단계에서는 가능한 근본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진술하여 조사된 현상의 최종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의 충분한 파악과 제시를 통해 경험의 구조가 드러난다고 판단하여서 구조의 기술을 생략하였다.

제 7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3명의 참여자와 2차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분석이 참여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member check). 그 결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동의를 얻었지만 일부 이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숙고하여 후에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을 따랐다. 신빙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

념을 괄호처리(bracketing) 하면서 연구자의 반응이 면담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고 가능한 답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두 번째 평가기준인 적합성(fittingness)을 위해서 엘리트 편견(elite bias)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연령, 교육수준, 친할머니/외할머니, 손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동거 유무 같은 변이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분석내용의 의미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member check) 다른 질적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세 번째 기준인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해서 연구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의미의 구성, 주제와 주제모음의 형성 과정의 예를 표로 제시하였으며,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인용문으로 삽입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절차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확증성(confirmability)은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립하면 저절로 획득되는 것으로(Sandelowski, 1986) 본 연구는 연구의 엄밀성 확립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8명의 연령분포는 59-76세였으며 평균연령은 64.4세였다. 그리고 손자녀와의 관계는 친할머니가 4명, 외할머니가 4명이었다. 현재 이들이 돌보고 있는 손자녀의 수는 1-2명으로 평균 1.4명이었고, 손자녀의 연령은 생후 6개월-만 11세로 평균 만 5세였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중간이었고 주거형태는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4명, 따로 사는 경우가 4명이었다. 참여자의 교육수준은 무학 1명, 초졸 3명, 고졸(중퇴) 4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3명, 천주교 2명, 종교 없음이 3명이었고 불교는 없었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친/외조모,

동거/비동거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목적적 표집을 할 때 이 4가지 조건을 균등하게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 동거, 외조모의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원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양육의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의미의 구성

8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중요 진술은 총 493개였다. 중요 진술에서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면서 의미를 구성하였다. 493개의 중요 진술로부터 32개의 의미를 구성하였고 <Table 1>은 그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주제모음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경험에서 구성된 의미로부터 각 개인의 특수한 경험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조직하여 12개의 주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12개의 주제를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조직하여 7개의 주제모음을 형성하였다. <Table 2>는 12개의 주제를 7개의 주제모음으로 추상화, 일반화한 과정을 나타낸다.

주제모음 1.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동기는 성인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희생, 그리고 타인양육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이미 성장해서 독립적인 핵가족을 이루었더라도 자녀를 돕기 위한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손자녀 양육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녀에게 닥친 안타까운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난국타개의 열쇠를 자신의 희생에서 찾은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자녀의 안타까운 상황은 육아를 위해 맞벌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아

<Table 1> Participants' significant statements and researcher's formulated meaning

Significant statements	Formulated meaning
1. 할머니 없으면 아주 못산다는 걸 막 그걸 할 때 내가 그래도 키우길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1. 손자녀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2. 우리 00 사랑해 하루 종일 뚜덕 뚜덕 뚜덕 그러고 싶어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2. 손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느낀다
3. 내 자식 같으면 내가 키우다가 병나도 괜찮잖아. 그렇고 뭐든지 내 자식 키울 때 보다는 좀 힘들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되고..	3. 손자녀 양육이 자녀 양육 보다 조심스럽다.
4. 자식 기를 때는 다 뭐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저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자식 키우는 거고...	5. 자녀는 의무적으로 키운다

<Table 2> Themes and theme clusters

Theme clusters	Theme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동기는 성인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희생, 그리고 타인양육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다.	주제1. 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희생 1) 내 자녀의 일은 내 일과 마찬가지로. 2) 자녀 뒷바라지는 끝이 없다. 3) 자녀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희생한다. 4) 자녀의 살림에 보탬을 주고 싶다.
	주제2. 타인양육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 1) 손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 2) 내 혈육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 3) 남들은 나만큼 책임감을 갖고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할머니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이중-모성역할을 가지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도구-지향적 모성을, 손자녀에 대해서는 관계-지향적 모성을 내면화한다.	주제3. 수용 가능한 자녀로 키우려는 도구 지향적 모성 1) 자녀는 의무적으로 키웠다. 2) 자녀양육에서는 공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3) 자녀가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훈육하였다
	주제4. 손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의 관계 지향적 모성 1) 손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느낀다. 2)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손자녀가 안쓰러워 일과를 손자녀 위주로 조직한다. 3)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손자녀 양육은 자녀 양육과 달리 양육의 재량권에 제한이 따르고, 할머니는 손자녀의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쓴다.	주제5. 한 다리 건넌 손자녀 1)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량권이 제한적이다. 2) 손자녀의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쓴다.
할머니는 일반적인 생애 주기의 궤도에서 벗어난 역할 벗어난 부담스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비해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주제6. 일반적인 생애 주기의 궤도에서 벗어난 역할 1) 노화로 인해 자주 피로하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2) 손자녀에게 온종일 신경을 쏟아야 한다. 3) 가사와 병행하고 있다.
	주제7. 건강의 악화 1) 빠른 노화를 경험한다. 2) 만성적인 증상이 새롭게 생기거나 악화된다. 3) 자가 간호에 소홀해진다.
할머니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감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방법을 추구한다.	주제8. 사회적 격리감 1) 사회적 역할이 제한된다. 2) 취미, 여가활동이 제한된다.
	주제9. 대처방법 추구 1) 환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할머니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와 손자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존감이 상승되지만 때로는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의 태도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주제10. 가족과 더불어 충만한 삶 1) 자녀와 상부상조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2) 손자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보람을 느낀다. 3) 손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주제11. 자녀와의 갈등 1) 자신의 핵가족만 위하는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2) 손자녀 양육방식에서 자녀와 갈등이 있다. 3) 자녀가 가사를 돕지 않는다.
할머니의 건강은 가족의 다른 문제 보다 우선순위가 낮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도 제한적이다.	주제12. 주변의 지지 1) 할머니 양육자의 건강문제는 가족 내에서 우선순위가 낮다. 2)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

동을 맡기기도 불안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결국 머느리가 직장을 관두면 아들이 혼자 벌면 그게 힘들 거든요 요새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지금은 무슨 제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요? 안 되지. (A 참여자)

참여자들은 혈육만큼 아동을 잘 돌봐줄 사람은 없다고 생

각하며 어느 정도 타인양육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무조건 내 혈육은 내가 키워야지 왜 남의 손에 맡기냐며 타인양육에 대한 불신이 맹목적인 경우도 있었고, 타인에게 맡기면 아무래도 혈육만큼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아동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난 딱 거 없고 내 손자, 내 새끼니까 녀의 손에 맡기기 싫다, 일단은 그런 맘으로 난 하는 거예요 (F 참여자)

주제모음 2. 할머니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이중-모성역할을 가지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도구-지향적 모성을, 손자녀에 대해서는 관계-지향적 모성을 내면화한다.

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녀들의 수가 많았으며, 대가족 구조 속에서 많은 가족들을 챙기는 일에 바빴고, 더러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느라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워주는 일도 적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여유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 양육을 완수해야할 의무로 인식하였으며 그 의무의 목표는 자녀를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이었다.

애들한테 야릇한 귀엽다 뭐 그런 거는 좀 생각, 그런 거는 중요하다는 건 느끼지 못했고 의무적으로 자식 낳아서 키우고...(생략)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시집에 뭐 또 경조사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뭐 사랑스럽고 그런 거는 못 느꼈지. (D 참여자)

자녀를 키울 때의 의무적인 양육태도와는 달리 양육의 의무감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참여자들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에 대해 혈연의 정과 기른 정 의 상승작용으로 강한 정서적인 유대(bonding)를 느꼈다.

손자가 더 귀엽죠 자식 기를 때는 다 뭐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저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자식 키우는 거고 이제 손자들은 더 이빠요 더 귀엽고 (B 참여자)

주제모음 3. 손자녀 양육은 자녀 양육과 달리 양육의 재량권에 제한이 따르고, 할머니는 손자녀의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쓴다.

손자녀의 소속과 일차적인 책임은 참여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자녀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손자녀를 ‘한 다리 건넌 존재’로 생각하며 양육의 재량권에 제한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자녀인 아들과 딸에게는 자기주장적인 반면에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비주장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사위에게는 의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G참여자의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기주장은 상대가 딸일 때와 사위일 때 그 차이가 확연하였다.

애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도 만약에 내 자식이면 내가 이거 이발시켜. 이렇게 대강 앞에도 그런데 지네 아빠가(사위) 싫어하니까 내가 조심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시끄럽지 않지. (G 참여자)

병원에 가라고 난리가 났었어(딸이). 근데 안 갔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그러냐’ 그래서 ‘개가 눈동자에 뭐 이상이 있냐’ 눈 위에 있는 데가 빨갛구, 사람 많은데 인제 그때 처음 가갔구... 그래서 병원 예방주사 외에는 안 갔어요 (G 참여자)

참여자들은 손자녀의 안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즉 손자녀를 ‘한 다리 건넌 존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양육 중에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날까봐 예전에 자녀 양육 때 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외손자녀는 오래된 부계혈통의 역사 탓에 남의 집안 자손으로 여기면서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많이 느꼈다.

그게 틀려. 신경 쓰이는 게 좀. 아무래도 내 자식은 그냥 다쳐도 내가 보다가 다쳤으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손주 새끼는 벌써 남의 새끼잖아. 그러니까 다칠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런 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H 참여자)

주제모음 4. 할머니는 일반적인 생애 주기의 궤도에서 벗어난 부담스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비해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참여자들 사이에 손자녀 양육은 노년기에 걸맞지 않은 역할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노화로 인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체력부족과 피로를 많이 느끼고 만성질환도 한, 두 가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손자녀에 대한 사랑과 이전의 양육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젊은 며느리나 딸은 늙어서 아기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의 힘든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인생에서 너무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몸은 늙고 시집살이는 젊어 진다고 젊을 때 한다고, 그 말이 저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E 참여자)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손자녀의 안전, 건강, 성장과 발달, 안위의 욕구를 해결해 줄 책임을 맡는 것이다. 손자녀의 안전이나 건강,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더 특별한 관심을 두는가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즉 손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언어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영아기나 걸음마기인 경우에는 안위에, 학령전기인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데리고 가고 오는 일에 관심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하지만 아직 어른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인 손자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며 챙겨주는 일은 매 순간 주의집중과 노력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참여자들과 같은 노년기의 삶에 큰 부담이 되었다.

만약에 애한테 신경 안 쓰면 똥을 싸서 뭉개거나 그러는 게 다반사였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라고 노력하는 거지 뭐 (웃음). 노력하는 거예요 (G 참여자)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겪은 신체 건강의 변화로는 체력부족이나 피로가 가장 많았다. 양육과 가사의 병행은 참여자들의 체력을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비추어 더욱 고갈되게 하였다. 그리고 밤 동안에 잠이 손자녀에게 한, 두 차례 수유하는 일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축적되었다. 피로의 다른 원인으로는 가사의 병행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 노령이 언급되었다. 특히 ‘두 집 살림’을 하는 참여자들은 누적된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의 여유를 갖기가 훨씬 힘들었다.

그리고 얘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다 뭐 살림을 해야 되니까. 반찬을 못해 먹으니까 체력이 더 딸려요 반찬해 주는 사람 있으면 애만 보래면 덜 힘들 거 같애 (G 참여자)

저녁에 잠을 설치니까 피곤해요 저녁에 자주 깨요 자주 깨니까 잠을 아무래도 혼자 자는 거 보다 꼭 자지를 못하니까 애는 자주 깨요 하루 저녁에 몇 번 깨 껴 때는 나 그냥 물병 물려주면 자거든요? 그것도 자꾸 그게 설치지더라구 잠이. (H 참여자)

손자녀 양육을 계기로 주로 허리, 무릎의 관절통이 새로 생기거나 이미 있던 관절통이 악화되었다. 이는 손자녀를 업거나 안아주는 활동이 일상화된 결과로, 참을만한 통증에서부터 다리를 절거나 더 이상 다리를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까지 다양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엄폐인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손자녀 위주의 일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가 간호에는 더욱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냥 심심하니까 업으면 또 내리라고 하고 내리면 또 업으라고 하고 늘 그래. 업었다. 내렸다. 그게 성가시럽더라구. 재는 키로수가 많이 나가니까 허리가 아퍼요 (C 참여자)

주제모음 5. 할머니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감을 느끼며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 대처방법을 추구한다.

참여자들은 손자녀의 대리부모 역할에 매몰되어 다른 역할

들을 잃어갔는데 특히 친구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반복되었다. 이는 손자녀를 돌보기 이전에 활발한 취미·여가활동을 해온 경우일수록 더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답답함, 우울, 누적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누구든지 보면 다 그래 할머니들은 자기들 모임도 많이 있고 가서 친구들 하고 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애 때문에 꼼짝을 못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D 참여자)

참여자들은 ‘사회적 격리감’을 환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을 추구하였다. 그들이 찾은 대처방법은 산책, 목욕탕이나 스포츠 센터 가기, 종교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이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외할머니들은 주로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딸과는 업무 교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친할머니에 비해 환기의 기회가 적었다.

저녁에 인제 애미가 오든가, 선생이니까 좀 일찍 퇴근해서 한 일곱 시 안으로 와요 나는 인제 저녁을 내가 안 먹으니까 퇴근해서 오면 배고플까봐 뭐 저게 하나라도 해놓고 밥해놓고 서는 니들 차려서 먹여라 하고서는 나는 인제 운동가요 헬스 거기 가갔고 한 세 시간이나 있다 와요 (D 참여자. 친할머니)

주제모음 6. 할머니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와 손자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존감이 상승되지만 때로는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의 태도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자녀에게 고마운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였다. 자녀들로부터 감사의 표현, 즉 물질적·정서적인 보상은 참여자들에게 ‘자녀에게 고마운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보상은 주로 정서적인 것이었는데 참여자들은 ‘손자녀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존재인 나’를 인식함으로써 자존감 상승과 손자녀 양육의 보람을 느꼈다.

통장에 항상 ‘엄마, 고마워.’하고 통장에다가 넣고 문자 보내고 ‘엄마 딸하고 보낼 때 그럴 때는 ‘아,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럴 때는 또 보람도 느껴요 (G 참여자)

애들이 그렇게 나 팔 아프다고 하면 이런데 막 주물려주고..

(생략) 할머니 없으면 아주 못 산다는 걸 막 그걸(표현) 할 때 내가 그래도 키우길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D 참여자)

하지만 때로는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의 태도로 인해 서운함이나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수고비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세가 부족할수록 자녀와의 갈등의 골은 깊었다.

그러면 자기네 위해서 이 액수(보합) 준비할 때 그럼 한 달에 엄마는 한 십만원 들어가는 거래도 해주는 게 정상 아니냐? 나는 십 원도 받은 게 없거든요? (E 참여자)

한편 딸이나 며느리가 가사를 분담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D, E 참여자는 손자녀 양육을 주도적으로 전담하고 있어 양육방식에서 비롯된 갈등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는 자녀의 태도로 인해 자신은 자녀로부터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항상 희생만 한다거나, 심지어는 자녀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 힘들겠어.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꼭 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으라는게 아니라, 뭐 좀 할라 그리고 빨래라도 널려진 것 있으면 개키고 개켜까지 봐도 자기 자리에 안 갖다놔요. (E 참여자)

주제모음 7. 할머니의 건강은 가족의 다른 문제 보다 우선 순위가 낮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도 제한적이다.

참여자 모두 자연적인 노화와 손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한 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건강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가 개인적인 일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비공식적인 지지였으나 이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사회적으로 조부모 양육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접근 가능한 공식적인 지지망은 거의 전무하였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 친구 부인이 여기서 살거든? 그 부인이 와서 좀 거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는 거들 새가 어딴야? 출근은 해야 되니까. (D 참여자)

논 의

할머니 양육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는 성인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희생, 타인양육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Noh와 Han(2000)은 중년기 동안에 인생역할의 주된 몰입상이 자녀에게서 배우자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와 심리적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모성역할에 재몰입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참여자 세대의 부부관계가 부부간의 친밀감 보다는 자녀양육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이후의 세대에서 Noh와 Han(2000)이 제시한대로 자녀와의 심리적 분리가 성공적으로 일어난다면 노년기의 손자녀 양육 현상도 감소해갈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혈연주의와 개별 보육의 장점도 손자녀 양육의 동기가 되고 있으므로 노년기 인구의 일정 비율은 손자녀 양육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 시대에 국한된 현상으로 평가절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쇠퇴를 겪고 있는 상태라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아동 양육은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손자녀 양육은 일반적인 생애 주기의 궤도에서 벗어난 역할로 경험되는데, Seltzer(1976)는 이러한 시기에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한 부적절감을 ‘시간의 흐름에 어긋난 역할’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참여자들은 생애 주기에서 벗어난 역할로 인해 신체건강의 악화를 경험하였는데 체력부족이나 피로가 공통적이었고 요통이나 관절염의 새로운 발생과 악화도 자주 거론되었다. 조부모 양육자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피로나 체력부족은 가장 흔한 건강문제로 나타났다(Haglund, 2000; Jendrek, 1993; Kwon, 2000; Minkler & Fuller-Thomson, 1999). 하지만 이런 신체건강의 악화는 손자녀 양육이 단독적으로 원인이 되기보다는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과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노화작용과 함께 건강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졌다. 참여자들은 건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가 간호에 소홀하였다. Caliandro와 Hughes(1998)의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질병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은 타인에 대한 책임과 헌신에 전력을 기울이며,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하도록 배우며,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구에 감응하면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느끼면서 도덕적으로 갈등하기 때문에(Gilligan, 1982)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녀와의 갈등은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양육방식의 이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담-보상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초래된 갈등이었다. 부담-보상 간의 불균형은 내리사랑의 지나친 합리화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시한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의 첫 번째 주제모음에 나타난 ‘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과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부모-자녀의 관계도 수많은 인간관계 중의 하나이며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이룰 때 쌍방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서적, 모성적 역할 유형을 가지고 살아온 여성 노인들의 삶의 만족은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3)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육방식의 이견도 자녀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갈등은 딸과의 관계에서는 쉽게 표출되지만 며느리와는 관계에서는 억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Kwon(2000)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자녀와의 양육방식의 차이, 할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서 낮은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 같은 심층자료를 얻는데 있어서 질문지 활용의 부적절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가족관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민감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할머니 양육자의 가족관계 부담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서적인 보상은 손자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았다. 손자녀의 애정적 표현과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일조한다는 보람은 할머니 양육자의 자존감을 고양시켰다. Caliandro와 Hughes(1998)의 연구에서 드러난 “아동에게서 즐거움 찾기”는 손자녀의 애정 표현이 여러 문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할머니 양육자가 기쁨을 찾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머니 양육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격리감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손자녀 양육 역할이 흡수해 버린 결과였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생산적인 일에서 물러나 친척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많은 연령대인데 양육에 얽매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Kwon, 2000; Kelley, 1993).

할머니 양육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매우 부족하였다.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지는 전무하였고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의 비공식적인 지지도 제한적이어서 대개는 손자녀 양육의 부담을 홀로 견디는 편이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지지는 주로 정서적인 것이었고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Burnette, 1999), 그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지지망은 우울이나 심리적인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Kelley, 1993).

할머니 양육자들의 자가 간호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격리감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역할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휴식간호(respite care)가 필수적이다. 국가나 사회는 할머니 양육자의 휴식간호 요구가 있을 때 베이비시터나 주간 돌봄(day car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부분의 할머니 양육자들은 이미 다양한 역할로 과부하 상태인 성인 자녀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맞벌이 자녀가 ‘자녀간병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할머니 양육자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경우를 볼 때, 맞벌이 자녀의 직장 내 육아지원서비스를 개선하여 맞벌이 자녀가 할머니 양육자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할머니 양육자의 손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그들의 의미체계 그대로 기술한 심층 서술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할머니 양육자는 어머니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리 양육자로서 가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었으나, 동시에 아동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많은 부담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양육 부담은 사회적 격리감, 손자녀 양육과 가사의 병행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자녀와의 갈등이었다.

지역사회 간호 현장에서 할머니 양육자를 중재할 때는 손자녀 양육을 여성노인의 건강의 위험요소로 인지하고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사정하며 이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자가 간호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육아지원서비스의 차원에서 휴식간호(respite care)를 통해 할머니 양육자의 악화된 건강을 회복,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휴식간호(respite care)는 또한 할머니 양육자에게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리감으로 손상된 심리적 건강을 회복,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자녀와의 갈등은 할머니 양육자의 심리적인 불편감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할머니 양육자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할머니 교실’을 통해서 성인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아동 양육에 관한 최신지견, 손자녀와 양육의 의미, 손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술을 교육한다면 자녀, 손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을 통해 할머니 양육자의 심리적 건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녀세대에게는 ‘출산 교실’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할머니 양육자-성인 자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할머니 양육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손자녀 양육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3세대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할머니 양육자를 간호학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그들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손자녀 양육이 할머니 양육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할머니 양육자와의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손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손자녀 양육의 대처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이론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조-손 가정의 할머니 양육자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심층 서술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Baik, K. I., & Kang, H. K. (1995). The actual condition of day care type and guilt in the 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281-293.
- Burnette, D. (1999).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parents in Latino families. *Am J Orthopsychiatry*, 69, 305-318.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Gerontologist*, 32(6), 744-751.
- Caliandro, G., & Hughes, C. (1998). The experience of being a grandmother who is the primary caregiver for her HIV-positive grandchild. *Nurs Res*, 47, 107-113.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aglund, K. (2000).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and ethnography of African-America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due to parental cocaine abuse. *J Fam Nurs*, 6, 120-135.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 *Gerontologist*, 34, 206-216.
- Kelle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 Nurs Scholarsh*, 25, 331-337.
- Kim, Y. J. (1997). *The type of foster care of double-income married couples and their require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o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3). *Statistical yearbook on women*.
- Kwon, I.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6(2), 212-223.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cCracken, G. (1988). *The long interview*.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Grandmothers as caregivers: Raising children of the crack cocaine epidemic*.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